

기술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및 경기도의 역할

김경섭

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

수소에너지 운송·활용 분야 소부장 기술 국산화, 경기도가 이끈다.

19년 3월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10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.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수소 기술 분류체계를 5개로 정립하고 각 분야의 이슈 및 핵심 기술 개발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한다.

하지만 현재 수소차, 연료전지 분야와 안전·환경·인프라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이 저조하여 현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해외 수소 산업의 부가가치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.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공표하였다.

경기도는 전국 제조업 산업의 35%를 차지하고 있다. 또한,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규모가 가장 크며, 수소차 관련 기업 역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내연기관 기반 승용차에서 수소차로의 기술적 이행과정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, 경기도의 수소 산업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며, 특히 수소 운송과 활용 분야에서 경기도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수소 활용(수송 및 발전)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에 집중하여 현 수소 기술의 국산화를 꾀할 것이며 수소에너지 시대를 한층 앞당길 것이다.